

굳건한 한미동맹 속 북핵·사드 등 안보 불신 해소



“우린 호흡이 잘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1일 오전(현지시간) 재미동포 간담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 캐피탈 힐튼 호텔 앞에서 태극기를 든 교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방미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우선 최대 과제였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뢰를 쌓고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조기대선 정국 동안 한·미 동맹과 북핵 및 미사일 문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서둘러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특히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돈독한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핵 문제 대화·제재 병행 단계적 해법 관철 공동성명에 없었던 방위비 분담 증액 부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백악관 단독 정상회담을 앞두고 내외신 취재진 앞에서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베리 베리 굿(very, very good)”이라고 말하고,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백악관 환영 만찬 후 문 대통령을 백악관 3층으로 초청해 링컨 대통령의 침실과 트리티룸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만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같은 신뢰 관계는 앞으로 한·미 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 조야의 불신을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조

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하며 단계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고위급 경제협의를 운영하기로 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정상회담 종료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내용과 무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도 원론적 수준의 언급을 예상한 우리 측에 당혹감을 안겼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에 기대 이상으로 환대 받아 양국 정상 임기동안 호흡 매우 잘 맞을 듯”

문대통령 귀국 전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 밖의 대접을 받았고 기대 밖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고, 아주 정중하고 친절했다”고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이어하우스에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3박5일 일정의 첫 미국 순방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 앞에서 ‘그레이트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매우 호흡이 잘 맞는 관계)라는 표현과 ‘베리 베리 베리 굿’(very very very good)이라는 말도 했다”며 “기대 이상으로 대단히 환대와 대접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오히려 세계는 우리를 대접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춰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기간 임

기를 같이하게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뜻이 잘 맞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국 정상을 당황하게 하는 독특한 악수요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악수를 앞두고 고민을 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악수에 앞서 “한국에서(악수에) 관심이 많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악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악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고 말이 나와서 오히려 악수가 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난 29일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손을 마주 잡는 동시에 먼저 왼손을 문 대통령 오른손 어깨에 1초 정도 가볍게 올렸다가 내렸고, 이에 문 대통령도 왼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손 팔꿈치 부분을 가볍게 쥐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나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때와 같은 트럼프식 ‘악수 대결’ 없이 두 정상이 밝은 표정으로 4초가량 악수하자, ‘흔흔한 4초 악수’, ‘신뢰의 악수’, ‘혈맹의 악수’ 등 다양한 해석이 잇따랐다. /연합뉴스

輿野 엇갈린 반응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 이상의 성공”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지난 1일 “6개월 이상의 외교 공백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 도래를

민주당 “한반도 평화·공동번영 새 시대...기대 이상의 성과”

한국당 “한·미관계 난관 많을 것” ... 국민의당 “속 빈 강정”

선언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굴욕 외교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양국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선 비판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한미관계에서 문 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

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은 총론적으로 한미 신뢰회복과 동맹관계 강화라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각론을 들어가 보면 경제와 안보 어느 것이나 해결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사드 문제에 대해 자세한 논의가 없었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창, 문화를 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평창문화올림픽이란?

- IOC, Cultural Olympiad Guide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개최국 및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합니다.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올림픽 관련 정보와 생생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2018cultureolympiad

페이스북
facebook.com/2018cultureolympiad